

그 빚을 나보고 갚으라고요? 中企 올리는 '외담대(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물품대금을 '외담대'로 받은 하청기업, 어느날 은행에서 날벼락이...
"원청업체가 안갚는 빚, 하청업체가 갚으시오"
하청업체들, 그런 설명 제대로 못들었는데... 졸지에 빚더미에

- 1500개 中企 원청업체 채무 떠안아
원청업체가 외담대를 안갚을 경우 하청업체로 그 빚이 고스란히 넘어가
에스콰이아 등 이런 규정 악용, 어음은 상환하면서 '외담대' 남발해
하청 中企 160곳, 330억원 넘게 물려

핸드백을 하청받아 만드는 A중소기업 사장 김모씨는 올해 초 패션 기업 에스콰이아 (법인 이름 'EFC')에 물건을 만들어 납품했다. 그는 물품 대금 1억1000만원을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외담대)이라는 형식으로 받았다. 외담대란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원청업체)이 '조만간 우리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는 일종의 보증서를 하청업체에 발급하면, 하청업체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을 미리 받아 쓰는 금융상품이다. 원청업체가 만기일에 하청업체에 주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은행에 지불하면 거래는 마무리된다. 은행은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대출이자 형식으로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다.

하청업체가 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과 비슷함.

연 9% 수준 이자를 미리 내고 외담대를 받아 쓴 김씨는 지난 7월 B은행으로부터 갑자기 "돈을 갚아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가 "무슨 돈을 말하는 것이냐"며 의아해하자 은행 담당자는 "원래는 에스콰이아가 돈을 상환해야 하지만 에스콰이아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한다. 원청업체가 돈을 안 갚으면 하청업체가 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게 외담대인데, 모르셨느냐"고 설명했다.

대출금

핸드백 부품비 등으로 이미 받은 돈을 다 써버린 김씨는 결국 은행에 돈을 갚지 못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그는 법인카드가 정지되고 다른 은행의 금융거래가 모두 봉쇄돼 사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김씨가 갚지 못한 돈엔 지금도 연 15% 수준의 연체 이자가 계속 붙고 있다. 김씨는 "에스콰이아는 연초부터 계속 위험하다는 얘기가 돌았던 회사다. 그런 조항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위험한 금융상품을 썼을 리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디폴트(채무 상환 불능) 위험을 중소 하청업체에만 몰아버리는 '외담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대부분의 하청업체가 이런 규정을 담은 '상환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외담대의 이런 특성을 악용해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외담대를 실행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어음을 막지 못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지만, 외담대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청업체에 가해지는 제재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은행은 원청업체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상환청구권을 들어 하청업체에서 돈을 받아내면 된다. 돈이 나가는 시점에 하청업체에서 적지 않은 이자를 챙긴 은행이 디폴트에 대한 위험 부담까지 하청업체에 지우는 셈이다. 에스콰이아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 어음은 계속 상환하면서도 외담대는 연체되도록 내버려뒀고,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올해 1분기에도 139억원의 외담대를 실행했다.

은행들은 부작용을 알고 있지만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은 "은행 입장에서 위험을 최대한 피할 수밖에 없다. 만약 상환청구권이 없다면 은행이 이런 상품을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 경우 결국 예전 같은 어음 체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